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수탁 과제	지능정보기술기반 보행사고 예측 및 위험요인 개선기술 개발	오성훈
	2020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규제분석 및 심의 지원)	조상규
	스마트 도시계획체계 및 관련 법령 연구	박성남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염철호
	집수리 활용 저층주거지 재생방안 연구 용역	서수정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부여) 타당성 조사	심경미

auri

수탁과제

❶ 지능정보기술기반 보행사고 예측 및 위험요인 개선기술 개발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은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TAAS(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에서 이력 DB를 기반으로 과거 교통사고의 부분별 통계검색 서비스 및 기본적인 GIS 분석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TAAS의 GIS분석은 사고이력 데이터를 노선별, 지역별, 부문별로 재분류하는 데 그치고 있어 사고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별 도로와 주변 토지이용, 교통현황 등의 관련 정보를 공간적으로 종합·분석하여 기존의 단편적인 보행 안전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정형·비정형 데이터(사고이력 데이터, 보행자 행태, 보행자길 네트워크 데이터, 교통/토지이용 데이터 등)를 종합한 보행안전 빅데이터 DB플랫폼(보행 안전지도)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리고 보도의 물리적 현황과 보행자 행태 조사 시에는 스마트폰 카메라와 LiDAR를 이용하여 개별 보행자 행태와 보도현황을 수집하고 딥러닝 기반 보행패턴 반복 학습(AI 보행궤적군 분석)을 활용해 보행교통사고 원인진단 분석기능 및 예측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나아가 보행자 교통사고가 밀집된 구역을 테스트베드로 선정하여 운전자 측면이 아닌 보행자 측면에서의 문제점 진단 및 예측기술 모형을 수정하고 위험구간 개선 기술의 시범 적용을 통한 효과를 실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행관련 시설 및 보행사고 정보 통합기술을 확보하고 안전정보 수집·분석의 지능화로 인한 보행자 안정성 및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연구는 행정안전부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연구이다. 주관연구기관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건축공간연구원은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연구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아이티에스 뱅크, 델리아이글로벌,

㈜동림티엔에스, 네이버시스템 총 5개 연구기관이 공동 및 위탁 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

오성훈

❷ 2020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사업(규제분석 및 심의 지원)

AICBM(AI, IoT, Cloud, Bigdata, Mobile)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나, 관련 규제로 인해 서비스화에 제약이 큰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2월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했다.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규제로 인해 현실 적용이 어려웠던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에 일정 기간 동안 특례를 부여해 특정 공간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 과정에서 안전성이 검증될 경우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혁신성장동력 R&D 대상 지역에 한정해 적용 가능하다.

이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신설된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을 통해 도출된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국내 외 규제 샌드박스 사례 분석을 통해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개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3차에 걸쳐 운영하며, 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 등 5건의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을 지원했다. 또한, 11건의 스마트실증사업 승인을 지원했다. 승인된 스마트실증사업의 주요 서비스 내용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안내 및 비대면 주문결제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IoT 기반 운행보조 시스템',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등이다. 둘째, PM(Personal Mobility), 드론, 건축물 데이터 공개, 헬스케어, MaaS(Mobility as a Service) 등 승인된 스마트실증사업별 관련 규제 개선안을 제시했다. 셋째, 국내 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분석한 결과, 국내 타 부처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금융, 산업, ICT 융복합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만,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환경, 의료,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규제 샌드박스 제도 분석 결과, 실증사업별 '개별지도 제도' 운영, 신청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신청 업체 평가 조건의 구체화 등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향후, 지속적인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상규

❸ 스마트 도시계획체계 및 관련 법령 연구

현 정부는 스마트도시 확산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기술 적용 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전국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계획을 장려하고 있으며,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스마트 챌린지' 등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도시계획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져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지자체 및 관련 전담 조직 신설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스마트도시계획은 신도시 및 대규모 사업 중심에서 기존 도심 및 중·소규모 사업으로 확장되는 등 과도기적 상황으로 지역 여건에 대한 반영 미비, 서비스 위주의 계획으로 공간계획으로 발전 미흡, 계획의 수립·지원을 위한 검토절차 및 향후 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한 사항의 부재 등 계획 내용의 순차적인 발전과 절차적 사항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스마트도시계획은 기존의 물리적 기반시설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 방식에서 신기술의 적용 및 상향식 계획, 데이터 기반의 정책 등을 다루어 기존 도시계획과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며, 이를 고려한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스마트시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현 시점에서 지자체의 스마트도시계획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계획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계획체계를

정립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기 수립된 스마트도시계획의 현황을 파악하고 내용을 비교·분석하며 전문가 자문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도시계획의 발전방안 모색과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사업 등의 운영·관리를 위한 절차적 지원으로 지속적인 스마트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성남

❹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지난 2014년 6월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4조에 따라 2015년 12월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이 수립되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기억과 일상이 어우러진 건축, 풍요로운 삶의 자산"을 비전으로, '건축자산의 가치 공감'과 '생활 속에서 누리는 건축자산'을 목표로 6대 실천과제, 16개 세부 실행계획, 38개 세부사업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총 11개의 광역지자체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건축자산 기초조사 실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한옥 산업화를 위한 국가 R&D 추진 등 법률과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건축자산 부문은 여전히 정책의 초기단계로 건축자산 보전·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역에서 관련 정책 추진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옥 부문은 2010년의 '국격향상을 위한 신한옥플랜' 발표 이후 정책추진 및 산업화의 기반마련과 선도모델 구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 한옥 건립 추이가 정체를 보이고 있고, 그간 추진된 기술개발의 확산과 새로운 한옥수요 창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2020년으로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 추진된 정책성과와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의 여건변화 분석을 통해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건축자산 부문과 한옥 부문으로 나누어 산·학·연·관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TFT를 구성하여, 그간의 정책 추진 성과 분석을 통해 한계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의 여건변화를 포함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다. TFT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3대 추진전략으로서 ①건축자산 진흥 정책 추진기반 구축, ②건축자산 가치증진 및 민간시장 활성화, ③신기술 확산을 통한 한옥의 현대화 및 체험기회 확대를 설정하고, 12개의 추진과제와 38개의 세부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은 공청회(11월 3일 시행)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염철호

❺ 집수리 활용 저층주거지 재생방안 연구 용역

2014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도시재생선도사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300여 개소 이상의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중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까지 233개소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건축법」에 의한 필지단위 주택정비를 위한 집단적 건축협정제도 도입 등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미접도 필지와 소규모 필지가 밀집해 있는 노후주거지 특성상 도로 확장이 전제되지 않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나 필지단위 주택정비사업은 주택정비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2016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가구당 1,200만 원까지 자부담

10%로 공사비를 지원하는 집수리 지원사업은 사유재산에 대한 재정지원은 특혜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지붕이나 담장, 외벽 등 외관개선 에 한정해서 공사비를 지원함으로써 노후주택의 성능개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지역 내에서 집수리 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행정적으로는 집수리 지원절차의 미비, 집수리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시공하자, 이력관리의 부재 등으로 집수리 지원 사업 자체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집수리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체계적인 집수리 지원사업 절차를 마련하고 노후주택성능개선과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골목길 정비 연계형 집수리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또한 시범사업 추진 성과를 분석하여 일반지역에 '골목길 연계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 및 제도개선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범사업은 2017년 이후 선정된 도시재생뉴딜 사업대상지 중 6개소를 선정하여 경관관리연계형, 에너지관리형, 공공기여형, 거점시설연계형, 사회공헌활동연계형의 5가지 사업 유형 중 골목길 특성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집수리 상담에서 주택상태진단, 적정한 집수리 공사비용 산출, 시공과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대상지마다 집수리 수요조사와 주택상태진단을 위한 집수리 점검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골목길 회의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집수리 관련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기반의 실증연구로서 시범사업 추진성과는 '골목길 정비 연계형 집수리 사업'이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개선을 통한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집수리 지원사업을 주택성능개선사업으로 정착시키고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추진하는 '골목길 정비 연계 집수리 사업'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서수정

❻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부여) 타당성 조사

2011년 7월 개정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육성법)」은 고도(古都)로 지정된 경주·공주·부여·익산에서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육성사업과 고도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의 타당성조사 대상인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의 시작은 2017년 수립된 '부여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변경)'에서 비롯한다. 이 기본계획에는 부여 고도를 보존,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과 세부사업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부여고도의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라키비움 성격의 '동아시아 역사문화 진흥원'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이후 2019년 충청남도청과 부여군청에서는 진흥원 건립사업의 추진과 구체화를 위해 '(국립)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 조성에 대한 기본방향과 운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에 제안된 사업계획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국가가 설립하는 기관으로서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을 부여에 설립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본구상과 설립형태, 사업타당성 조사를 원점부터 전면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① 진흥원의 범주설정을 위한 '동아시아' 및 '역사도시', '진흥원' 등 관련 개념 검토 및 이론적 고찰 ② 역사도시 관련 정책추진 현황 및 한계점 도출 ③ 진흥원 및 국내외 유사기관 사례조사 분석 ④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의 비전 및 목표, 주요 기능 등 기본구상 ⑤ 입지검토 및 건축계획 제시 ⑥ 경제성타당성 분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고도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4개 고도를 포함한 국내 역사도시의 진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진흥원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설립방향과 사업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설립필요성 및 사업타당성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역사도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심경미

2020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포럼 '복지와 도시·건축의 만남, 약속, 그리고 기대'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14일(월)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0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포럼'을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하였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주최하고 auri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복지와 도시·건축의 만남, 약속, 그리고 기대'를 주제로 우리나라 복지와 건축 도시 부문 간 협력을 통한 고령사회 대응 및 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의 중요성과 지향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서형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위원, 조응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위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복지 및 건축도시 분야의 정책과 사례를 발표하고, 종합적 고령사회 대응 정책 및 지원연구의 시사점 도출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먼저, 김지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대공감과장은 '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이어 고영호 부연구위원은 '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건축도시 정책연구와 과제'를 소개하였다.

한편,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는 인구구조변화 대응 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 지원을 위해 올해 설치되었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지속거주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 고령사회 대응 국가·지자체 역량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1, 2차 AURI 경관포럼 개최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는 좋은 경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관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통합마스터플랜과 경관'과 '지역의 경관계획, 그 역할과 가능성'을 주제로 총 2회의 경관포럼을 개최하였다.

11월 12일(목)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제1차 경관포럼은 '좋은 경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논의하기 위해 세 도시의 사례를 들어 경관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합마스터플랜의 의의와 역할, 한계와 가능성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안재락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하동 통합마스터플랜 수립과 그 이후', 배영욱 로컬드라이브 건축사사무소(주) 대표소장의 '말하는 철원 연결하는 신철원', 마지막으로 조준배 유진도시건축연구소 본부장의 '영주시 경관계획 실행력 강화를 위한 실험'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 12월 7일(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제2차 경관포럼은 2014년 「경관법」개정에 의해 각 지자체마다 경관계획을 수립해왔으며, 재정비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늘어감에 따라 기존 경관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역의 경관계획, 그 역할과 가능성'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에 경관계획을 수립한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과 함께 광역도, 특별시·광역시, 기초지자체 단위의 경관계획을 살펴보고, 향후 지역 경관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가 선진화된 국토 경관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한 '3차원 경관심의 기술공모전' 수상작 시연회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하는 新 경관관리 수단을 보급하고자 하였다.

2020 경찰청-건축공간연구원 범죄예방환경설계 컨퍼런스 ‘1인 가구를 위한 범죄예방 정책’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경찰청과 함께 12월 3일(목)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2020 경찰청-건축공간연구원 범죄예방환경설계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는 2019년 9월 체결한 경찰청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범죄예방 정책추진을 위한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두 기관은 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한 ‘1인가구 밀집지역 범죄예방 가이드라인’,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의 결과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보고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1인가구를 위한 범죄예방 정책’을 주제로, 김창룡 경찰청장의 개회사와 박소현 건축공간연구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이재영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과장이 ‘예방적 경찰활동과 셉테드 발전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박유나 연구원은 ‘한국형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위한 장소프로파일 기법 연구’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손동필 연구위원은 ‘1인가구 밀집지역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주제로 발표를 마쳤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성원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강석진 국립경상대학교 교수, 김도우 경남대학교 교수, 한민경 경찰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를 통해 연구성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향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정책연구를 도모하고자 했다.

2020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가 주관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후원하는 '2020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1월 18일(수)에 열렸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우리 전통 건축인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올해 10회를 맞은 한옥공모전은 '한옥, 현대건축과 만나다'를 주제로 준공·계획·사진·영상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특히 올해부터 디지털 매체의 발전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영상부문이 신설되었다. 4개 부문에 668개의 출품작이 접수되었으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준공부문 3점, 계획부문 17점, 사진부문 25점, 영상부문 6점 등 총 51점 작품을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한옥 건축물의 종합적 완성도를 고려한 준공 부문 대상은 한옥 마당의 본질적 가치를 표현한 '일루와유(壹樓臥遊)'이며, 새로운 한옥에 대한 아이디어를 중점적으로 살핀 계획 부문 대상은 한옥 다세대 주택을 제시한 '한옥 현대주거와 만나다'에게 수여되었다.

한편, 사진·영상 부문은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옥의 아름다움과, 의미, 가치를 독창적으로 해석한 작품을 심사기준으로 삼았으며, 사진 부문은 '현대건축과 한옥의 만남', 영상 부문은 '구옥과 신옥의 만남'이 각각 대상을 수상하였다.

auri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이 주관한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1월 3일(화)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건축자산 보전·활용을 통한 국가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 정체성 제고를 위해 관련 분야의 실무자 및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안)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재생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범부처 협력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건축자산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 등 관련 제도 합리화,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도모델 및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하며, 한옥건축양식 확산 유도 등 신기술의 확산과 한옥 산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한옥 현대화 및 체험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후 강동진 경성대학교 교수, 신안준 충청대학교 교수, 안창모 경기대학교 교수, 안국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장옥연 온공간연구소 소장, 조정구 구가도시건축 대표,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과 건축공간연구원이 주최·주관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가 후원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공청회'가 지난 12월 10일(목)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2010년 처음 수립되었으며, 5년 마다 국가 건축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획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전담조직을 운영해왔으며, 8월에는 대국민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본계획(안)에 반영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대국민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식으로 시작하였으며, 유광흠 건축공간연구원 기획조장실장이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안)은 건축의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로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자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 공공건축 혁신과 도시·건축통합설계로 국민 생활공간 향상 ② 지역 건축안전성능 향상 및 탄소중립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③ 건축산업 구조개선 및 역량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3대 정책목표 아래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공청회 이후 12월 22일(화)까지 국민생각함과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2020 GRAND DIT FESTA 개최

건축공간연구원 마을재생센터는 지난 11월 3일(화)부터 7일(토)까지 5일간 군산시민문화회관에서 '2020 GRAND DIT FESTA'를 개최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과 군산시, 블루머스타드스튜디오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Stop TALKING Start MAKING'을 모토로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을 직접 만들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이 행사는 군산시민문화회관 옥상에 임시 스케이트보드 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관심 있는 일반인 참가자를 모집하여 교육과 워크숍, 기획·설계, 시공 등을 함께 하는 등 택티컬 어버니즘 적용 방안을 고민하였다.

'군산시민문화회관의 민관협력형 도시재생을 위한 운영 및 건축기획연구' 수탁과제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간 멈춰있던 군산시민문화회관의 일부 공간을 시범 운영하며, 오페라 공연, 서예 전시 등 시민들을 수동적 주체로 만드는 기존 시민문화회관의 활용법과 달리 시민들이 능동적 주체가 되는 참여형 공간으로서의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요가 등 정적 활동부터 스케이트보드 등 동적 활동까지 폭넓게 실험할 계획이다.

2020 아시아 도시경관상 수상작 선정

건축공간연구원은 지난 12월 17일(목), '2020 아시아 도시경관상(Asian Townscape Awards : ATA)' 수상작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된 아시아 도시경관상은 아시아 지역 내 우수 경관사례를 발굴하여 타 도심의 모범이 되며, 성과를 이룬 도시·지역·사업 등을 대상으로 5가지 심사기준을 통해 수상작을 선정하는 경관 관련 국제 시상제이다. 건축공간연구원은 유엔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 후쿠오카 아시아도시연구소, 아시아해비타트협회, 아시아 경관디자인학회와 함께 올해부터 공동주최자로 참여하여 한국, 일본, 중국, 기타 아시아 도시를 대상으로 총 11개의 본상(Asian Townscape Awards)과 2개의 심사위원상(Jury's Awards)을 선정하였다.

지난 10월 작품 공모를 진행한 결과, 국내에서는 자연경관, 도시경관, SOC경관 등 총 12개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이중 '시민과 함께 자라는 서울숲공원 이야기(서울숲그린트러스트)', '태화강 국가정원(울산광역시)', '40년 된 청사, 문화 담은 환경청사로 거듭나다(서울특별시 강동구청)'가 본상을, '예당저수지 느린호수길(예산군)'이 심사위원상을 받았다.

향후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는 아시아도시경관상을 통해 국내 우수 경관사례 발굴과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0 한국도시설계학회 건축공간연구원 특별세션 '21세기 도시설계의 담론과 실천'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지난 11월 7일(토) 2020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건축공간연구원 특별세션'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21세기 도시설계의 담론과 실천'을 주제로 도시설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조명하고, 향후 도시설계가 가진 의제와 미래도시를 위한 비전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에 박소현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류중석 중앙대학교 교수, 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 정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영욱 세종대학교 교수, 김기호 서울대학교 교수, 이제선 연세대학교 교수로 구성된 도시설계전문가 인터뷰 시리즈를 제작 및 발표하며 도시설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였다.

이어진 특별세션의 주제발표에서 오성훈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도시공간을 위한 가로체계'를 소개했으며, 김성준 부연구위원은 '소외된 건축, 방치된 가로'라는 주제를 전하였다. 손동필 연구위원은 '새로운 삶, 새로운 커뮤니티'를 설명하였으며, 고영호 부연구위원은 '경험없는 경관'을, 마지막으로 한수경 부연구위원의 '도시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녹지'를 주제로 발표를 마쳤다.

이를 통해 보행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도시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공간과 가로체계, 건축과 가로, 커뮤니티 및 경관, 녹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설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uri 도시·설계연구단 2020 연구성과 5분순삭 개최

건축공간연구원 도시·설계연구단은 지난 12월 21일(월) 온라인 세미나로 '2020 연구성과 5분순삭'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학계, 관련 분야 종사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시·설계연구단의 2020년도 연구성과를 5분 동안 짧고 굵게 전달하는 페차쿠차 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총 2부에 걸쳐 도시·설계연구단 소속 연구진 12인의 발표가 순차적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토론에서는 권영상 서울대학교 교수, 김형규 홍익대학교 교수, 양재섭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유미 상명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연구단의 연구성과 및 향후 기획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1부	
김영지	공개공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제도 개선 연구
박유나	한국형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위한 장소프로파일링 기법 개발 연구
한수경	노상주차의 전략적 관리를 통한 가로공간 개선방안 연구
고영호	포용적 고령친화 커뮤니티 실현을 위한 고령자 복지정책의 공간적 개선 방안
허한결	접근성 분석 고도화를 통한 효율적인 생활SOC 관리방안 연구
오성훈	보행편의지수 개발 및 보행정책 평가체계 고도화 연구
2부	
김성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보행환경 예측 및 보행가로 설계 B&A
허재석	보행환경개선지구 및 도로다이어트 사업의 실제
손동필	1인가구 밀집지역의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현태환	범죄예방환경조성사업의 범죄두려움 개선 효과 분석
최가윤	고령자의 도시환경 인식·만족도 조사
한승연	지역사회 생활환경 고령친화도 진단

2020 찾아가는 공공건축 교육 프로그램 실시

건축공간연구원은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0 찾아가는 공공건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공공건축과 도시의 가치, 바람직한 공공건축의 요건 등 교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서울, 인천, 대구, 세종, 경기도 등 12개 공공기관 관계자 3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김광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의 '公共建築 : 共을 넓히는 公', 윤승현 인터커드 건축사사무소 대표의 '건축 사연, 마을과 사람들', 이영범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일상이 만드는 작은 디자인, 동네를 살리는 커뮤니티 디자인', 정이삭 동양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조교수·에이코랩 대표의 '일상의 공공성', 조남호 솔토지빈 건축사사무소 대표의 '사회적 관계를 확산시키는 마을공동체의 설계', 황두진 건축사사무소 대표의 '무지개떡 건축, 도시건축의 보편적 유형', 이강민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의 '한옥의 인문학적 이해'를 주제로 구성되었다.

한편,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참가자의 98%가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공공건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참가자가 97%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법·제도 실무, 우수 프로젝트 소개, 도시건축 인문학 강의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